

구워서 그린 그림 2300장 조화... “센트럴시티 건물 넥타이 역할”

거리의 예술품 반포 고속버스터미널의 ‘밀레니엄 타이’

지방에서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으로 오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고속버스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는 이색적인 조형물이 여행객들을 맞고 있다. 센트럴시티와 고속버스터미널 승강장 외벽을 잇는 초대형 벽화가 바로 그것이다. 언뜻 아무 의미 없는 벽 장식이 불과할 것 같지만 사실 이 조형물은 국내 굴지의 예술가가 구워낸 훌륭한 예술품이다.

전체적으로 차분한 갈색의 느낌이 절묘하게 눌러 있는 이 작품은 지난 2000년 완공된 ‘밀레니엄 타이’다. 버스 승강장의 바로 위 외벽에 형형색색의 도예 작품들이 하나의 띠를 이루며 길게 늘어선 모습이다.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도예작품으로 기네스 북에도 올랐다.

밀레니엄 타이는 외벽에 설치된 조형물이다. 그만큼 강한 햇빛과 겨울의 영하 온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수 점토로 만든 45x45cm 규격의 도판을 2년 동안 무려 3000장을 만드는 수고가 들었다. 실제 작품에는 그 중 2300장이 설치됐다. 하지만 변수는 강남의 변화무쌍한 날씨였다. 춥고 더운 데다 눈·비에 노출이 된다면 일반적인 접착으로는 도저히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했다. 결국 점토와 비슷한 특수한 접착 방식을 직접 고안해 사용했고,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 한 번의 보수 없이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건축 도자’라는 새로운 예술적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신상호(65) 작가의 작품이다. 그는 서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과 산업미술 대학원장을 역임,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영국 왕립미술대학원의 방문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2006년~2008년에는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관장을 지내

며 ‘국제 건축도자 학술회’ 등도 개최했다. 현재는 대구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 중이다. 실제 그가 만든 건축도자 작품은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메인 타워와 서초동 삼성 타운, 클레이아크 미술관에서도 볼 수 있다.

“양복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넥타이다. 넥타이는 패션의 중심으로 사람의 성품이나 센스, 인격까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밀레니엄 타이 역시 센트럴시티 건물의 넥타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신 작가는 밀레니엄 타이를 넥타이에 빗댔다. 센트럴시티와 고속버스터미널 건물에 넥타이를 매는 것처럼 작품을 통해 건물의 성격·품격을 표현하려 했다. 센트럴시티 건물이 21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에 완공됐기 때문에 작품의 제목도 밀레니엄 타이가 됐다.

게다가 당시의 관례를 깨고 건물과 일심동체가 되는 작품을 설치한 것도 특징이다. 12년 전에는 대부분의 건물 실내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신 작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건물 외관에 작품을 걸었다. “많은 사람들이 미술작품을 보다 쉽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려 한 하나의 시도였다”고 그는 말한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예술품을 만든 그답게, 평소 작품 철학은 개방적이다. 그는 “작품을 할 때는 열린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재료와 장르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밀레니엄 타이의 감상 포인트로 ‘특별함’과 ‘품격’을 꼽았다. “밀레니엄 타이는 일반적인 그림이 아니라 구워서 그린 그림(Fired Painting)이다. 그림의 색은 가마에서 오랜 시간 불을 견뎌 만들어진 것으로 더욱 특별하기 때문에 깊은 색과 품격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고속버스 승강장 위 외벽에 길게 늘어선 ‘밀레니엄 타이’의 다채로운 모습. 나혜수 기자



열고 콘서트

중·고생 학부모를 위한 고입·대입 설명회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전문가들이 입시전략은 물론 학습법, 학부모 힐링·코칭법을 알려드립니다. 올 겨울 자녀의 중·고등학교 3년 대장정을 앞두고 자녀 교육의 모든 것을 열공콘서트에서 준비하세요.

- ✔ 날로 복잡해지는 대입·고입 정보가 궁금한 학부모
- ✔ 대입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어·수학 학습법이 알고싶은 학부모
- ✔ 자녀 교육에 지쳐 힐링이 필요한 학부모
- ✔ 사춘기 자녀 코칭법을 배우고 싶은 학부모

일시: 대입 1월 8·9일 오전10시~오후1시
고입 1월 15·16일 오전10시~오후1시
장소: 강남구민회관 (지하철 3호선 대치역 6번 출구)
대상: 중·고등 자녀를 둔 학부모
참가비: 대입, 고입 각 3만원 ※500명 선착순 모집
주최: **J** 중앙일보 미디어플러스
주관: **D**School

대상	일시	강의 내용	강사
대입	8일	대입전략 가이드: 2013학년도 대입 분석, 2014학년도 이후 전망과 전략	김찬휘 센터장(대상·티치미 입시전략연구소)
	9일	국어 학습법: 문학·비문학 지문 독해 방법, 국어 점수 올리는 법	김영준 대표 (김영준국어논술학원)
		수학 학습법: 문·이과 수학 3년 학습 로드맵, 고난도 문제 대처법	남언우 원장 (MIL수학학원)
고입	15일	엄마 힐링: 강남에서 행복한 엄마로 살아가기, 자녀와 부모 분리해서 생각하기	안광복 교사 (중등고)
	16일	고교 선택전략: 특목고·자율고·일반고 선택전략, 내신절대평가제가 미치는 영향	임성호 대표 (하늘교육)
		과고·영재고·자율고 입사: 민사고·용인외고·하나고, 과학고·영재학교 선발 방식과 특징	임성준 원장 (파인만 학원)
16일	국어 학습법: 국어 점수 올리는 법, 독서활동 가이드	윤진성 원장 (윤진성국어논술학원)	
	수학 학습법: 선행과 심화 균형잡기, 중등 수학의 고교 연계	김수민 원장 (CMS대치영재관)	
	엄마 코칭: 중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엄마 역할,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기	박재원 소장 (비상교육 공부연구소)	



문의 02-6262-5678 신청 온라인(www.dschoool.co.kr)접수

340년 은행나무에 마을 안녕 기원 제사



지난해 10월 27일 반포4동 은행나무 공원에서 ‘서래당제’를 지내는 모습. [사진 반포4동 주민센터]

강남 지역 전통문화 ② 반포4동 ‘서래당제’

프랑스 마을로 알려진 반포4동 ‘서래마을’. 이곳에도 수백 년간 내려온 전통 동제(洞祭)가 있다. 사평대로에서 서래마을 카페거리로 들어가면 첫 블록에서 좌회전을 해 60여m를 들어가면 ‘은행나무 공원’이 보인다. 이곳이 ‘서래당제’가 치러지는 장소다. 나무 둘레가 300cm, 높이가 19m에 이르고 수령이 340년 된 은행나무가 지나는 사람들을 맞는다.

이곳이 처음부터 제사 장소인 건 아니었다. 토박이 오정숙(78)씨는 “내가 어렸을 적엔 서래마을 몽마르뜨공원 한가운데에 고목이 있었는데 그 나무를 ‘당할아버지’라고 불렀다. 현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근처에도 고목이 있었다. 그 나무는 ‘당할머니’라고 불렀다”며 “음력 10월 1일이면 당할아버지에게 찾아가 제사를 드리고 떡시루를 다시 지고 당할머니에게 갔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사는 3개 마을이 함께 지냈다. 현 서울지방보달청이 있는 지역에 형성됐던 ‘마누골’, 반포경남아파트가 들어선 곳에 있던 ‘섬마을’, 지금 서래마을이라고 불리는 ‘서애마을’이 그 마을들이다.

이후 서래마을에서 조달청으로 넘어가는 산 중턱에 있던 오래된 향나무를 당나무로 정했다. 다시 그 주변에 있던 한신 서래 아파트 뒤편 전나무로 제사 장소를 바꿨다. 이 전 나무가 말라 죽자 2001년에 지금의 은행나무를 당나무로 정했다.

토박이 정대근(62)씨는 “예전엔 서로 당주(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를 하겠다고 싸웠다. 자기 집안으로 부가 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당주 1명과 당주를 도와주는 하주 2명을 정하는 전통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씨는 “예전엔 제사를 몇달 앞두고 당주가 정해지면 이후 우리 마을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라도 제사가 끝날 때까지 나갈 수 없었다”며 “마을을 나가려 하면 마을신이 발을 묶어 놓아 땀 수 없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래당제는 반포4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돼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선거법상 공식적인 당제를 열진 않았지만 토박이들이 주축이 돼 간략하게 치렀다고 한다. 오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당제를 치르지 않은 해는 당주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못 지냈을 때 한 번 뿐”이라며 “앞으로도 마을의 안녕을 위해 꾸준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한대 기자 chd@joongang.co.kr